

수입원 다양화로 신학기반 다지기 나서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올해 예산은 296억 원. 단일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간 예산 130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조계종 재무부가 <재정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종단 재정 확대, 특히 세입 구조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발간된 이 보고서는 조계종 예산규모가 종단의 역할 수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종단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예산 세입원을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전체 예산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종단 인건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시했다. 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6.6%에서 5년이지난 2004년에는 20.8%로 4.2% 증가했다.

시대는 종단의 새로운 세입원 발굴을 요청하고 있다. 직영사업, 특별분담사업, 단위 사찰의 분담금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세입구조로는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무부는 종단 개혁과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계종 재정확대 방안 주요내용

부동산 TFT 구성, 웰빙과 연계 생산성 향상 출판업·사찰 소모품 직영 등 수익사업 전개

■ 종단 소유 부동산 개발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도심에 있는 토지들은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산중에 있는 토지들은 수련장이나 각종 체험센터 및 웰빙 산업들과 연계하면 상당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종단에 특별 기금(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T·F팀)을 두고 개발할 토지와 개발목표, 방법, 자금동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종단직영 수익사업 실시

종단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출판업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다. 스님과 신도들의 표준화된 의류도 중요한 판매아이템이 될 수 있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익사업도 계획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판매 등의 수

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경우, 민간 기업에서 종단의 구성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법도 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이 대표적 사업이다.

■ 불교테마파크 건설

레포츠관광 분야 수익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단기방안으로 친환경 테마를 가진 농원이나 1사찰 1농촌 운동을, 중기방안으로 특성화된 소규모 테마시설 개발과 운영,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벤트 개발 운영, 유명사찰 상표 출원, 불교 레저스포츠관광 예·적금 상품, 불교관광상품권 등을 모색할 수 있다.

■ 특별시주·후원금 제도 활성화

특별시주나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종단차원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경우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나 승려복지 및 장학 재단 설립 등은 신도와 스님의 참여를 이끌어 낼 좋은 분야다.

■ 중도 관심과 기여도 높여야

중도의 관심과 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 기여도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신도교육과 포교사교시, 중앙신도회의 활동과 연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지역별 거점 도심포교당 집중 육성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심포교당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의 종단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 또 본사의 도심포교당을 설립하는 것도 종단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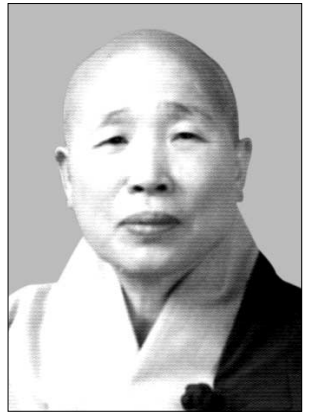
■ 중앙-교구-말사 연계

종단 재정 확보는 중앙종무기관 차원의 노력과 교구본사 및 단위사찰의 노력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단위사찰, 교구본사, 중앙종무기관이 역할분담을 해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추진하고 모색해야 한다.

보고서는 "재정이 필요한 것은 결국 포교를 잘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에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도들이 인식할 때 재정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28> 상륜 스님

반백년 참선·포교 한길



삼각산 승가사 상륜(76·사진) 스님은 192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27세에 출가를 작정하고 속가인연이 있었던 청담 스님을 찾아갔다. "충청도에 가면 비구니 우두머리가 있다. 거기서 가라"는 청담 스님의 뜻에 따라 찾아간 곳은 경허·만공 스님의 선맥이 살아 있는 수덕사 견성암이었다.

청담 스님이 말씀한 비구니 '우두머리'는 근대 비구니 선맥의 중흥조로 추앙받는 법희 스님. 상륜 스님은 그렇게 법희 스님을 은사로 55년 수덕사 견성암에서 삭발염의 했다. "몸이 하는 말 다 들어 주고 언제 수행하느냐"는 은사스님의 말씀을 좇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수행에 몰두했다. 어느 해에는 1년을 높지않고 장좌수행을 하기도 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시대가 그

한 불사는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보름 215호 마애불에 참배하기 쉽도록 108 계단이 만들어지고 대웅전 영산전 산신각 적묵당을 증건했다. 79년에는 신라초전성지 도리사에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세웠고, 94년엔 높이 76척, 대석(臺石) 면적 45평에 9층으로 된 '남북통일 호국보탑'을 세웠다.

법희 스님 20년 시봉...1년간 장외불와 제일선원서 철마다 선객 30~40명 제접

래서인지 근기가 약해, 우리는 아침마다 죽 밖에 못 먹었어. 어저 다 사과 하나가 생기면 그걸 6족으로 나눠 먹으면서 공부 했지. 그것도 부처님오신날과 명절 때 1년에 딱 두 번 뿐이었어. 그레도 늘 공부 재미있었지."

은사스님과 한방에서 잠을 자다 간혹 잠에서 깨면, 은사스님은 한방중에도 혼자 일어나 공부에 열중하셨다. 그러면 스님도 벌떡 일어나 공부를 했다. 그렇게 은사스님을 시봉하며 20년을 살았다. 근대 비구니 3대 강백 스승 스님에게 대교를 수료하고 견성암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였다. 1971년 사행인 도원 스님의 뒤를 이어 승가사 주지를 맡게 됐다. 작지만 담백하고 정갈한 산사의 모습을 간직한 승가사는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었다. 좁고 외진 산세로 기도대 외에는 찾아오는 이도 없어 절 살림이 곤궁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상륜 스님의 수행자다운 면모에 감화된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사격을 정비하기 위

해군 중앙법당 통해사를 장건하는 등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상륜 스님은 이러한 불사 보다 승가사 제일선원장으로 철마다 30~40여명의 비구니 선객들이 제접하는 일에 더 열성이다. 95년부터는 용인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인 법륜사를 짓고 있다. 올해로 출가 50년을 맞은 상륜 스님은 참선 수행하고 신도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실천적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다.

은화한 미소를 띠며 채로 상륜 스님은 기자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전 같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마음을 비우고 화합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중생들의 앎을알이가 늘어난 만큼 부처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씀이다. 요즘도 상륜 스님의 아침저녁으로 '은 국민이 불자가 되기'를 발원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몽골 불교 재건, 한국 불자 속속 동참

금강선원, '세계불교공원' 건립 후원

몽골불교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불교공원' 건립에 한국불자들의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불교공원'은 몽골정부가 몽골불교 중흥을 위해 세달라며 몽골국립공원 땅 8천 평을 몽골불교계에 내놓고, 몽골불교 대표인 고르도바보취 스님이 이를 불교성지로 개발하겠다고 발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그러나 땅만 있을 뿐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고르도바보취 스님이 몽골의 한국 사찰인 고려사에 도움을 호소하면서 고려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불교 금강선원(총재 활안이)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한지 4개월여 만에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한국불자 후원자가 4000명을 넘어섰고, 대한불교진흥원에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몽골불교계는 세계불교공원 안에 불상과 '세계불교박물관'을 건립하고 불상 좌우에 범종 및 사물을 조성해 몽골국민들의 신앙공간이자 불교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 금강선원은 한국불자

들의 후원을 받아 세계불교공원에 23m 크기의 부처님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완공할 예정이다. 금강선원은 또 세계불교박물관 건립에도 도움을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인 1등 켜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몽골불교 재건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활안 스님은 "몽골정부와 불교계가 의지를 갖고 몽골불교의 옛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몽골불교를 돕고 이를 통해 몽골에 한국불교를 심는데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몽골불교는 몽골이 73년 간 옛 소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뿌리까지 뽑힌 상태. 그러나 몽골 정부는 최근 7~8년 동안 부처진 사원을 복구하고 인제 양성에 나서서 등 불교 재건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한데다, 급속히 커진 기독교세의 견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02)969-2410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불교상담대학 인기

불교상담개발원, 전년 비해 수강자 두배 넘어



3월 23일 개강한 불교상담대학의 첫 강의는 이근후 박사가 맡았다.

3월 23일 개강한 불교상담대학 수강자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이)은 운영하는 불교상담대학에는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을 포함, 총 74명이 신청해 불교상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불교상담대학의 인기 요인은 불교심리학, 불교와 정신치료, 부처님 마음으로 하는 상

담 등 불교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현대인의 정신건강, 의사소통, 상담 이론 등을 다룬 20여개 강의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된다.

사회적인 관심도 한몫했다. 황선정 사무국장(불교상담개발원)은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며 "상담은 전문적이고 특이한 사람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스컴을 통한 상담·심리치료 등의 자연스러운 부각으로 전환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지난해와 달리 홍보팀장을 채용하고 교구본사 주지 연수 등에 상담 코너를 운영하는 등 홍보에 각별히 신경 쓴 것도 인기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불교상담대학은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인강행동의 이해, 상담심리학, 불교와 상담 등을 대주제로 용타동사상 이사장, 서광(보스톤 서운사 주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분야별 강의를 진행한다. 강지영 기자 jygang@buddhapia.com

제 명 공 고

•성명 : 김복곤(법명: 혜원) •성명 : 김종일(법명: 성문)

상기 스님들은 지난 3월 17일 개최된 향곡문도회의 의결에 따라 문도회 회칙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향곡문도회에서 제명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명 사유

묘관음사 분원장 중무 인승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종단과 불교사회에 비난과 지탄을 받고서도 참회하지 않고, 향곡 큰스님의 법상과 묘관음사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화합과 위계질서를 파하였기에 문도회에서 제명 결의 하였습니다.

불기 2549년 3월 17일

향 곡 문 도 회 회 장 혜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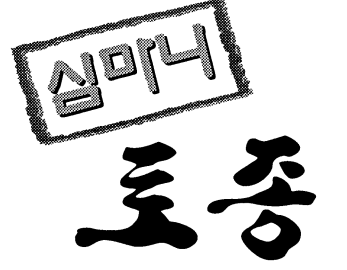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생안전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일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祝】: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소룡 선수의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국산토종오가피 모듬분양 및 상담 ※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